

## 【 국내금융 뉴스 】

### 부실 PF대출과 대응방안

□ 금융권에서는 부실 PF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이 제시됨.

-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말 금융권의 부실 PF대출 채권 규모가 9조 7천 414억원으로 전년 3조 4천 39억원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함.
- 대안으로 부실 PF대출 채권처리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배드뱅크를 은행의 차등 출자를 통해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정상 제약과 일부 은행의 반발이 예상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는 난항이 예상됨.
  - 규정상 은행들이 자회사 이외의 타회사 지분을 인수할 경우 15% 이상의 출자 지분을 보유하기 어렵고, 부실 PF대출 규모가 은행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출자 비율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

□ 제2금융권 부실 PF대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보험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차등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음.

-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PF대출 규모는 각각 12조 2천억원, 4조 9천억원으로 제2금융권 총 PF대출 잔액 27조 8천억원 중 61.5%를 차지함.
-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에도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 PF대출 채권매입이 가능한 방안이 요구됨.
  -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상장 저축은행은 사후정산 방식의 부실 PF대출 채권 매입이 어려운 실정임.
- 보험회사의 부실 PF대출 채권은 사업성이 있을 경우 부실 PF대출 채권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지원을 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부실 PF대출 처리 배드뱅크 설립 추진 등, 연합뉴스 등, 4/18)